

강진군, 친환경농업법 대폭 강화한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농가대상 교육 및 홍보
상습위반자 과징금...‘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도

강진군은 지난 8월 27일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업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농업인

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업법 개정으로 결과 중심에 머물렀던 기존 친환경농업이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의 다양성 등 '생태환경 보전'의 실천 및 과정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친환경농업의 본질에 다가 가고자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재확립하였다. 또 친환경인증 상습 위반자에게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특히, 농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한 및

처벌'의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 인증제한은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1회에 1년, 2회에 2년 동안 인증이 제한되었으나 바뀐 법률은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현재 강진군의 친환경인증현황은 572건 699농가 1천670ha(유기 198, 무농약 1천472)로 올 연말까지 2천343ha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은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관리·감독이 강화된 만큼 법규 미숙지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과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바뀐 법률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 농가들이 제도 변화에 하루 속히 적응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월동배추·쪽파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포함된다

해남과 보성지역의 주요 농작물인 월동배추와 쪽파(실파)가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포함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을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과수와 시설채소 위주로 구성돼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

로 신청받는다.

품목별 가입 기간은 마늘 남지형은 9~30일, 마늘 한지형과 양파는 16일~10월16일, 월동배추는 10월4일까지, 쪽파(실파)는 10월25일까지다.

전남은 8월 말 현재 6만8324농가에서 11만1554ha 면적에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농가 가운데 3442농가가 총 8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전남도, 수차례 건의 끝 신규품목 반영

해남·보성 등 주산지 농민 혜택 전망

해를 입었던 노지채소 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으며 올해 시범사업에 월동배추, 쪽파 등 신규 품목이 반영됐다.

9월 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월동배추, 쪽파(실파), 마늘, 양파 등 4개 품목이다.

사업 지역은 마늘은 고흥, 양파는 함평·무안, 월동배추는 해남, 쪽파(실파)는 보성이다. 해당 작목 재배농가를 대상으

로 신청받는다. 지난해에는 6만6919농가(10만4635ha)가 가입했으며, 재해피해를 입은 30297농가에서 146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홍석봉 전남도 식량유통과장은 "짚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실질적 재산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인 만큼 농가들이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인구일 기자



가을장마 우산행렬

가을장맛비가 내리는 3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우산을 쓴 학생들이 등굣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광양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추석 자금사정 악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남 광양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전년보다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관내 139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9년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

났다.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추석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30.6%였으며, '지난해와 비슷하다' 61.2%, '지난해보다 나아졌다' 8.2%로 조사됐다. 추석 상여금 지급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83.7%가 '지급 할 예정'

(전년 77.6%)이라고 응답했다.

지급 방법으로는 '정기상여 형태 지급' 46.3%, '일정금액 지급' 53.7%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별도의 선물지급' 50%, '경기가 어려워서' 25%, '연봉제 시행과 자금부족' 12.5% 순으로 응답했다.

정기 상여를 지급하는 업체의 경우 '통상상여의 50% 지급'이 57.9%, '50%이상~100% 지급'이 42.1%로 조사됐다.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50만원 이하'가 90.9%, '50만원 이상~100만원'은 9.1%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체기업의 85.7%가 추석연휴 휴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했으며, 휴무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대다수 '교대근무'로 조사됐다.

광양=김승호 기자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사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